건강 칼럼

다양한 담관질환 공통 증상은 '황달'

백 규 현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흘러나오는 통로로 십이지장까지 이어지며 흔히 담도라고도 불린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500~1000㎖ 정도의 담즙이 담관을 통해 배출되며 담관은 췌장을 통과해 십이지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췌장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담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들…담관결석, 급성담관염 흔해

담관에는 여러 질환들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담관결석과 이로 인한 급성담관염이다. 이 외에도 담관용종, 담관기형, 담관협착 등이 생길 수 있다. 담관협착은 양성 협착과 음성협착이 있고 악성협착은 암을 지칭하며 담관암, 췌장암, 유두부암, 십이지장암이 있다. 담관질환의 발병기전에는 결석과 종양으로 인한 담관 폐색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환자에서 담즙 정체로 인한 황달이 발생하게 된다.

담관결석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대부분 담낭에서 돌이 담관 내로 빠져나오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돌이 담관 폐색을 일으킨 후 세균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급성담관염이라고 한다. 급성담관염의 경우 주로 우상복부 통증과 발열, 황달 증상을 호소하게 되며 심하면 저혈압, 의식저하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 담관결석으로 인한 급성담관염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금식을 하고 적절한 수액 공급을 하게 되며 또한 세균 감염이 동반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담관결석의 경우 췌관을 막아 급성췌장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는 음주와 더불어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담관결석이 확인되면 내시경하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를 통해 결석을 제거할 수 있다. ERCP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경피적 경간 담관 배액술(PTBD)을 시행할 수 있다.

▲담관암 복통없는 황달 특징…통증 있는 담관결석과 차이

담관암은 담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담관 내 어느 부분에서나 생길 수 있는데 위치에 따라 간내 담관암, 간문부 담관암, 총담관암으로 분류한다. 또한 췌장암도 담관을 흔하게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관암의 위험인자로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담관낭종, 간내담석, 캐롤리씨병이 있으며 간디스토마라고도 불렸던 간흡충증 같은 기생충질환도 담관암의 위험인자다. 간경화, B형간염, C형간염은 간암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담관암 특히 간내 담관암의 위험인자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담관암 환자는 복통이 없는 황달을 호소하게 되며 이는 통증이 흔히 동반되는 담관결석과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담관암의 경우 일반 간질환과도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이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도 식욕저하와 체중감소, 전신피로감, 가려움증, 회색변 등이 동반될 수 있다.

2018년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담관암의 발생률은 10만명당 14명 정도로 전체 암 중 9위에 해당된다. 가장 흔한 위암이나 갑상선암의 1/4 수준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각종 영상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담관암의 5년 생존율은 2018년 기준 28.8% 정도로 모든 암 가운데 췌장암 다음으로 예후가 나쁜 암이다. 담관암의 치료는 가능하다면 수술이 원칙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방사선치료나 최근에 나온 치료법 중 고주파열치료술이나 광역동학 치료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담관질환의 진단과 치료…간기능 검사 중요

담관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담관질환의 경우 황달을 동반한 간수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간기능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담관의 염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백혈구수, C-반응단백 수치를 체크한다. 또한 담관암, 췌장암과 관련이 높은 종양표지자인 CA19-9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담관질환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CT를 기본적으로 촬영하게 되고 CT에서 담관질환이 의심될 경우 병변을 정밀하게 보기 위해 MRI, 그중에서도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MRCP)을 사용한다. 또한 초음파내시경도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초음파 기구가 달린 내시경을 위나 십이지장에 삽입한 후 담관이나 췌장을 최대한 근접해서 촬영하는 방법이다. 담관과 췌장질환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이며 복부초음파의 단점을 보완하는 검사다.

담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검사로 내시경하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이 있는데 이를 통해 담관결석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결석 제거가 가능하다. 또한 담관협착이 있을 경우 내시경하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통해 조직검사와 황달을 낮추기 위한 담즙배액술을 시행할 수 있다. 내시경하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는 침습적 고난이도 고위험도 시술로 검사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며 이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 천공, 췌장염 등이 있다.

담관질환은 진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관질환이 의심된다면 췌장·담관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 자세한 진찰과 적극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고문

회전교차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전교차로는 2010년 도입되면서 벌써 운영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통행방법이 아니어서 회전교차로 진입을 무서워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회전교차로는 원형교차로로 불리고 보통 신호등 점멸순서에 맞게 이동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신호등이 없으며 연속적인 차량진입을 가능케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통행의 속도가 개선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환경적,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실제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사망사고가 76% 감소하고 교통사고가 24.7%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전교차로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다.

회전교차로를 쉽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첫 번째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교차로 내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 차량 여부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점등하여야 한다. 회전 차량이 없다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시속 30km 미만)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이는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려는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효과가 있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회전교차로는 진입할 때부터 진출까지 다른 운전자를 생각하고 양보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나 하나쯤이야 라기보단 나부터 양보하고 배려할 때 시간도 절약하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직선이 아닌 원형이라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방법만 알면 일반 도로만큼 쉬운 게 회전교차로이다. 세 가지를 기억에 남기고 안전하게 운전하길 바란다.

허만옥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사 설

전주 무료자전거 교실 운영

전북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희망찬 3월 무료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장소는 전주 종합경기장 자전거 교육장이다. 자전거 기초반과 지도자반이 있으며 60세 이하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자전거 이론 실기, 교통안전, 건강교양, 지구환경, 심신수련교육, 운동프로그램 등이다. 지도자 양성 자격을 부여하며 자전거 문화 만들기도 한다. 자전거는 무료 대여한다.

접수는 매주 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문의는 전북자전거타기운동본부 혹은 전북자전거연합 232-5561이다. 전북자전거타기운동본부는 '희망찬 3월 청소년 자전거 타는 날'도 운영한다.

자전거 타는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3월 19일은 고덕산 가는 길, 3월 26일은 박물관 가는 길에서 열린다. 진북사와 모악산 가는 길은 이미 다녀왔다.

코스는 종합경기장을 출발, 목적지를 왕복하고 경기장에서 해산한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펼친다. 교통안전, 지구 살리기, 심신수련, 에너지 절약, 교통질서 캠페인, 내 고장 문화역사 배우기, 생태환경 체험, 환경보호 감시 정화 등을 실시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생활 교통 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당시 전북자전거타기운동본부 전주지부 김종영 회장은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5일간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한바 있다.

자전거 이용 방법 및 안전수칙 교육을 통해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서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무료교실 교육과 자전거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자전거로 달리는 전주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문제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학생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청소년 참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실현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며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로 참정권 확대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이자 이 땅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중심인 교육인 만큼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공약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경우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청의 정책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미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아졌다. 청소년은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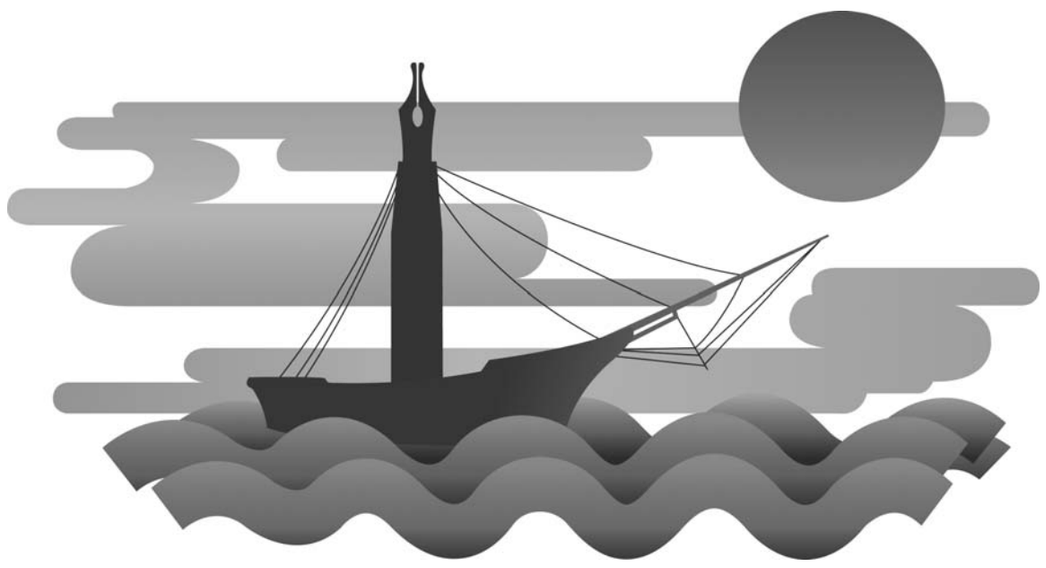
전북지역 시민사회 및 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전북운동본부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전북지역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해 대통령 선거·시장 및 교육감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토론회, 모의투표 등을 실시한다.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과정으로 투표를 해야 문제의식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다.

시대의 모순을 바로잡고 해법을 함께 만들어나가는데 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 학생 중심의 교육이란 학생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미래 교육은 비판적 사고능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 민주시민으로써 필요한 교육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